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표영희¹, 윤미연^{2*}

¹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교수, ²동남보건대학 뷰티케어과 교수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 Value View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Beauty Majoring students

Young-Hee Pyo¹, Mi-Yun Yoon^{2*}

¹Professor, Division of Beauty & Cosmetic, Osan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Beautycare, Dongnam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뷰티관련 학과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뷰티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및 직업가치관과의 구조적인 상관관계를 설문수집과 통계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뷰티관련 대학의 뷰티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구직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는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p < .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과 구직결정에 대하여 $p < .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진로결정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구직결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occupation value of beauty major students by questionnaire coll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5 with respect to occupation valu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t $p < .001$. Occupation valu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1$ for career decision and job decision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ignificance level .05.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and job value are the factor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elf-efficiency of career decisions, and it is believed that continuous research on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self-efficiency of career decisions of beauty major university students is necessary.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 valu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Job decision

*Corresponding Author : Mi-Yun Yoon(ymy@dongnam.ac.kr)

Received August 2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3,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현대인은 자연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구조나 제도, 습관, 사회의 지적(知的) 능력의 변화, 또는 사회적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행동의 반복적인 결과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적인 사회 다변화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생은 기존 성인 세대와 청년 세대를 넘나드는 과도기적인 중간단계로 인체의 발달 과정상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준비되고 발달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1]. 더욱이 요즘과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로결정이나 취업, 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많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속한 전공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감정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 정의하였으며[2], 개인이 선택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며, 자신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되며[3], 또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4].

직업가치관이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라 정의[5]하였고, 직업에 대하여 지닌 사고방식이나 신념으로 가치 판단이 함축된 가치부여를 뜻하며 개인과 사회가 일과 자리에 따라 갖게 되는 가치관이며[6],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 활동에 개인의 신념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rking Self-efficacy)은 [8]의 진로성숙과 태도의 모델에 바탕을 두어 [9]가 제안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이며,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 할 수 있다[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자이즌증감, 성역할 정체감, 진로선택 유형, 고려

되는 직업의 폭,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과 동기부여 등과 관련이 있다[11].

대학의 뷰티관련 학과에서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자질과 더불어 자부심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함께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는 반면 뷰티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와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이를 토대로 뷰티전공 학생들의 진로전략 수립 및 상담 활용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뷰티관련 대학의 뷰티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 9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1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신뢰수준이 낮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로 총 301부를 사용하였다. 회수율은 91.7% 이다.

2.2 연구내용 및 방법

2.2.1 연구가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및 직업가치관의 구조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공만족도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2.2.2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에 관한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5문항, 직업가치관 6문항, 전공만족도 6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구직결정 자기효능감 14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통계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와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였으며, 변수의 상호관련성을 위한 요인분석 방식은 데이터의 총 분산을 이용,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주성분 분석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전시키는 지각회전 방식의 베리맥스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간의 상관성 영향을 위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계층적 회귀분석 실시와 더불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21 ve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 총 30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명(6.6%), 여자 281명(93.4%)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학년은 1학년 198명(65.8%), 2학년 103명(34.2%), 전공은 헤어 75명(24.9%),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137명(45.5%), 피부 또는 화장품 89명(29.6%)로 나타났다. 희망취업처로 뷰티관련 현장 182명(60.5%), 미용관련회사 76명(25.2%), 전문학교 및 학원 25명(8.3%), 개인 창업 18명(6.0%)으로 주로 뷰티관련 로드샵 등과 같이 직접적인 현장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취업정보 관련부서 이용 및 방문 횟수는 '경험 없음' 200명(66.4%), 5회 이하 방문 89명(29.6%), 6~10회 이하 방문 12명(4.0%)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교내 취업관련 부서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요인적재량 직각회전방식(Varimax)과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4이상의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KMO(Kaiser-Meyer-Olkin)값과 Bartlett검증 chi-square값 및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였는지 확인을 하였고,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을 찾아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0.7미만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2.1 전공만족도 요인 분석

전공만족도는 선행되어진 연구를 활용하여[12]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전공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할 문항들을 선별하였고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총 6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결과 누적분산설명력은 총 분산의 73.946%로 1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KMO = .898, Bartlett $\chi^2 = 1360.616$, $df = 15$ 로 유의확률 $p < .001$ 로 이상적인 표본 적합도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모두 0.8이상의 수치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 .929$ 로 타당성과 신뢰도 모두 검증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rtation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	Cumulative Percent (%)
Gender	man	20	6.6	6.6
	Woman	281	93.4	100.0
Grade	1st Grade	198	65.8	65.8
	2nd grade	103	34.2	100.0
Major	Hair	75	24.9	24.9
	Makeup, Nail art	137	45.5	70.4
	Skin, Cosmetics	89	29.6	100.0
Desired employment place	Scene	182	60.5	60.5
	Beauty company	76	25.2	85.7
	Vocational schools	25	8.3	94.0
	Personal start-up	18	6.0	100.0
Number of information use	No experience	200	66.4	66.4
	Less than 5 times	89	29.6	96.0
	Less than 6 ~ 10 times	12	4.0	100.0

Table 2. Major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Result

Question	Ingredient
	Career Related
4. My major course fits me well	.879
5. I think our major belongs to popular department.	.876
1. Curriculum content of department major is interesting	.869
2. There is a good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 by grade level.	.855
3. The composition of the course reflects well the field I want to learn.	.852
6. Our majors work well.	.828
Eigenvalue	4.437
Dispersion description	73.946
Cumulative description	73.946
Reliability(Cronbach's α)	.929

KMO : .898, Bartlett 검정: $\chi^2 = 1360.616$, (df=15, p<.001)

3.2.2 직업가치관 요인 분석

직업가치관은 선행되어진 연구를 활용하여[5]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직업가치관을 5점 척도로 측정할 문항들을 선별 하였고 아래의 Table 3 과 같다. 총 6개의 문항으로 되어있 으며, 요인분석결과 누적분산설명력은 총 분산의 74.743% 로 1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KMO = .922, Bartlett 근사 $\chi^2 = 1373.845$, df = 15, $p < .001$ 로 나타나 이상적인 표본 적합도와 요인적재량도 모두 0.8이상의 수치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 요인은 Cronbach's α 값 .803으로 측정 항목에 대하여 집중 타당 성과 신뢰도 모두 검증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Occupation value factor

Question	Ingredient
	Job Commitment
5. I value my sense of accomplishmen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98
3. I value economic stability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84
6. I value aptitude and interes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70
4. I value the work environment (welfare)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67
2. I value honor and status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60
1. I value remuneration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805
Eigenvalue	4.485
Dispersion description	75.743
Cumulative description	75.743
Reliability(Cronbach's α)	.932

KMO : .794, Bartlett 검정: $\chi^2 = 314.093$, (df=10, Sig.=.000)

3.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선행되어진 연구를 활용하여 [13,14]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5점 척도로 측정할 문항들을 선별하였고 아래의 Table 4 와 같 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1번 문항은 공통성이 낮은 항목으로 이를 제거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결과 누적분산설명력은 총 분산의 74.637% 로 2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하위 요인1은 진로결 정 분산 설명력 40.225%, 하위 요인2는 구직결정 분산 설

명력 34.413%으로 구성 되었다. KMO = .923, Bartlett 근 사 $\chi^2 = 3427.544$, df = 78로 유의확률 $p < .001$ 로 나타나 이상적인 표본 적합도와, Bartlett 검정 결과 이상적인 표본 적합도와 요인적재량도 모두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났고, Cronbach's α 는 각각 진로결정 .945, 구직결정 .927로 타 당성과 신뢰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3.3 상관관계 분석

각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 간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

한 상관관계는 아래 Table 5 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직업가치관과 .626, 진로결정과 .665, 구직결정과 .474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과 .754, 구직결정과 .714의 양(+)의 상관관계를, 진로결정은 구직결정과 .585의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값이 0.8이상이면, 변수의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이 .754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Analysis of career decision marking self-efficacy factor

Question	Ingredient	
	Career decision	Job decision
7. I can choose my major or career.	.847	.291
1. I think I have the qualities to be a beauty expert.	.844	.225
5. I can prepare my resume.	.843	.185
4. I can see the subjects that I need to learn in successfully completing my chosen course.	.834	.272
2. I have good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in my major.	.808	.280
6. I can change my chosen course if it is not satisfactory.	.802	.315
3. I can plan my career for the next five years.	.795	.281
10. I think that my ability does not fall when compared to motivationa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165	.842
14. I can find information about the jobs I care about in the library or on the internet.	.275	.834
12. I know what an ideal job is for me.	.250	.825
13. I can choose one job from the list of occupations I like.	.328	.824
8. I can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while doing job search.	.222	.808
9. I am certain that I want to get a job.	.376	.746
Eigenvalue	5.229	4.474
Dispersion description	40.225	34.413
Cumulative description	74.637	
Reliability(Cronbach's α)	.945	.927

KMO : .923, Bartlett 검정: $\chi^2 = 3427.544, df=78, p<.000$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 value	Career decision	Job decision
Major satisfaction	1			
Occupation value	.626**	1		
Career decision	.665**	.754**	1	
Job decision	.474**	.714**	.585**	1

** p<.01 significant at both levels

3.4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 가설 검증은 Table 6 과 같이 가설 1 '전공만족도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부분가설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어 가설 1은 채택이 되었다. 연구 가설 2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부분가설 2-1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가설 2-2 '전공만족도가 구직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어 가설2는 채택 되었다. 연구 가설 3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부분가설 3-1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가설 3-2 '직업가치관이 구직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어 가설 3은 채택이 되었다. 연구 가설 4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대하여 부분가설 4-1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부분가

설 4-2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p = .386$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여 기각이 되었으며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3.5 전공만족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 모형은

$R^2=.392$ (수정된 $R^2=.39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F=192.452$, $df=(1, 299)$, $p<.001$ 로 보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0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beta=.626$,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독립변수 전공만족도가 직업가치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6. Verification of research theory

Theory		Contents	p
H1		Major satisfaction will affect occupational values.	***
H2	2-1	Major satisfaction will affect career decisions.	***
	2-2	Major satisfaction will affect job decisions.	***
H3	3-1	Occupation value will affect career decision.	***
	3-2	Occupation value will affect job decisions.	***
H4	4-1	Occupation value will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
	4-2	Occupation value will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and job decision.	.386

*** $p < .001$

Table 7. Difference in occupational value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495	.165		9.079	***		
Major satisfaction	.641	.046	.626	13.873	***	1.000	1.000

$F=192.452^{***}$, $R^2=.392$ (adj. $R^2=.390$)

*** $p < .001$, Dependent variable : Occupation value

3.6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8,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의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3.6.1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의 회귀 모형은 $R^2=.443$ (수정된 $R^2=.441$)의 높은 설명력이 있으며, $F=237.549$, $df=(1, 299)$,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25로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에 대하여 β

$=.665$,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6.2 전공만족도에 따른 구직결정의 차이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의 회귀 모형은 $R^2=.225$ (수정된 $R^2=.222$)의 설명력으로 회귀식의 유의성은 $F=86.843$, $df=(1, 299)$,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1로 전공만족도는 구직결정에 대하여 $\beta=.474$,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8. Difference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699	.141		12.078	***		
Major satisfaction	.609	.039	.665	15.413	***	1.000	1.000

F=237.549^{***}, R²=.443 (adj. R²=.441)

*** p < .001,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

Table 9. Difference of job decision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151	.169		12.742	***		
Major satisfaction	.442	.047	.474	9.319	***	1.000	1.000

F=61.928^{***}, R²=.225 (adj. R²=.222)

*** p < .001, Dependent variable : Job decision

3.7 직업가치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은 Table 10, 직업가치관과 구직결정에 대한 회귀분석은 Table 11과 같다.

3.7.1 직업가치관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의 회귀 모형은 R²=.569 (수정된 R²=.567)의 설명력이 있으며, F=394.296, df=(1, 299),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64로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에 대하여 β =.754,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7.2 직업가치관에 따른 구직결정의 차이

직업가치관과 구직결정의 회귀 모형은 R²=.510 (수정된 R²=.509)의 설명력이 있으며, F=311.514, df=(1, 299), p<.001로 보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2로 직업가치관과 구직결정에 대하여 β =.714,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0. Difference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Occupation valu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310	.129		10.161	***		
Occupation value	.673	.034	.754	19.857	***	1.000	1.000

F=394.296^{***}, R²=.569 (adj. R²=.567)

*** p < .001,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

Table 11. Difference of job search decision according to career valu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270	.140		9.081	***		
Occupation value	.649	.037	.714	17.650	***	1.000	1.000

F=311.514^{***}, R²=.510 (adj. R²=.509)

*** p < .001, Dependent variable : Job decision

3.8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 분석한 결과 가설1, 가설2, 가설3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X를 독립변수로, Y가 종속변수, M이 매개변수이라고 한다면 M을 준거변수로, 그리고 X를 예측변수로 설정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우선 X의 회귀계수(가설2)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며, 둘째로 Y를 준거변수, X를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X의 회귀계수(가설1)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Y를 종속변수로, X와 M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먼저 M의 회귀계수(가설3)가 유의하고, 이 시점 X는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첫째 회귀 식 X의 회귀계수(가설1)의 절대값 보다 작아야 한다. 여기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M은 완전매개 효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매개변수 M은 부분매개 효과라 할 수 있다.

3.8.1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모형은 Table 12 와 같으며, R²=.630 (수정된 R²=.628)로 가설 2의 R²=.443 (수정된 R²=.441)보

다 매개변수의 개입으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F=151.119, df=(2, 20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72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β=.291, p<.001, 직업가치관은 β=.555, p<.001 유의수준 .05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 진로결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독립변수의 β값도 가설 2에 비하여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직업가치관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사이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8.2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모형은 Table 13 과 같으며, R²=.511 (수정된 R²=.508)로 가설 2의 R²=.225 (수정된 R²=.222)보다 매개변수의 개입으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F=174.714, df=(2, 20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2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β=.623, p<.001 유의수준 .05에서 취업의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변수 전공만족도는 매개변수와 구직결정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β=.042, p=.386으로 동일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였으므로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구직결정 사이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다.

Table 12. The Effect of Occupation value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699	.141		12.078	***		
Major satisfaction	.609	.039	.665	15.413	***	1.000	1.000
F=237.549***, R ² =.443 (adj. R ² =.441)							
(Constant)	.958	.130		7.391	***		
Major satisfaction	.291	.041	.318	7.041	***	.608	1.644
Occupation value	.496	.040	.555	12.293	***	.608	1.644
F=151.119***, R ² =.630 (adj. R ² =.628)							

*** p < .001,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

Table 13. The Effect of Occupation value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Search Decis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151	.169		12.742	***		
Major satisfaction	.442	.047	.474	9.319	***	1.000	1.000
F=86.843***, R ² =.225 (adj. R ² =.222)							
(Constant)	1.219	.152		8.040	***		
Major satisfaction	.042	.048	.291	.868	.386	.608	1.644
Occupation value	.623	.047	.686	13.218	***	.608	1.644
F=174.714***, R ² =.511 (adj. R ² =.508)							

*** p < .001, Dependent variable : Job decision

4. 결론

본 연구는 뷰티전공 학생들이 전문적인 자질과 더불어 자부심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함께 요구 되어지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및 직업가치관과의 구조적인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직업가치관에 대하여 $\beta=.626$, $p<.001$ 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에 대하여 $\beta=.665$, $p<.001$ 로, 구직결정에 대하여는 $\beta=.474$,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에 대하여 $\beta=.754$, $p<.001$ 로, 구직결정에 대하여 $\beta=.714$,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진로결정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 성취력에 영향을 주며[15],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도 관련이 있으며[16,17], 의사결정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18].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19],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20]. 그러나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연구[14]에서 시사하는 것과 같이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M. K. Jung. (2005). Develop self-regulated learning test tool for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Evaluation of Korean Education*, 18(3), 155-181.
- [2] Y. J.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3] H. S. Ha. (2000). *A Study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4] S. C. Jang. (2003).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Konkuk University, Seoul.
- [5] J. A. Choe. (2015).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otives for Choosing Beauty Art Major and Career Values on Their Class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Seokyeong University, Seoul.
- [6] G. Y. Song & T. Y. Lee. (2009). Analysis of difference of occupational value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ajors of college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1), 399-406.
- [7] G. H. An & Y. H. Lee. (1998).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 vocational education*, 17(1), 1-17.
- [8] J. O. Crites. (1969). *Vocationak psychokogy*. New York: Mcgraw-Hill.
- [9] K. M. Tayler & N.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10] N. E. Betz & G. Hackett. (2006). Career self-efficacy theory: back to the fu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3-11.
- [11] S. K. Park. (2013).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 [12] K. S. Kwak. (2015) *The effect of image and self-image consistency of airline crew on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Korea University, Seoul.
- [13] S. K. Park. (2013).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 [14] S. A. Sim. (2013). *Study on major adjus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Focusing on 4-year college students by division*. Sungkxul University, Gyeonggido.
- [15]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orea Journal of Contents*, 12(6), 328-2337.
- [16]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 [17] S. T. Moon & M. H. Bak. (2013). Exploring the structural model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perceived employability. *Jurnal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4), 79-104.
- [18]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19] E. K. Lee.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20] B. R. Lee. (2012).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s of students in agriculture specialized high school on the career decision levels*. Suncheon University, Jeollado.

표영희(Young-Hee Pyo)

[정회원]



- 현재 : 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 E-Mail : bluewrap@osan.ac.kr

윤미연(Mi-Yun Yoon)

[정회원]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뷰티케어과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 E-Mail : ymy@dongnam.ac.kr